

월요광장

호남 5현의 한 분 유희춘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글 잘하고 경학(經學)에 밝아 학자로서도 유명했지만 '미암일기(眉巖日記)'라는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진 미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호남의 5현(五賢) 즉 다섯 분의 대표적 학자 중 한 분이었다. 미암은 '표해록(漂海錄)'으로 세상에 크게 알려진 금남(鎭南) 최부(崔溥)의 외손자로, 형남 유성춘(柳成春)과 연달아 문과에 급제한 명문의 후손이었다. 해남 출신이었지만 담양에서 벼슬을 했고, 말년에는 담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증가도 담양에 있으며, 후손들도 담양에 남아 담양 사람이 되었다.

한말 지사(志士)이자 시인이며 역사가였던 매천 황현(黃鉉)은 그의 저서 '매천야록(梅峯野錄)'에서, 호남의 선비들이 호남 출신 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5인을 꼽아 나라에 상소하여 문묘(文廟)에 배향하기를 주장한 다섯 분의 현인을 일러 '호남 5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태인의 일제(一齋) 이항(李恒), 해

남의 유희춘, 광주의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나주의 사암(思菴) 박순(朴淳), 남원의 옥계(玉溪) 노진(盧禎)이 바로 그들이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오래전에 문묘에 배향되었기 때문에 빠졌지만 본디는 호남 육군자(六君子)라고 호칭했었다. 여기에서 하서는 빠지고 한말까지 '5현'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5현은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5현'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그분들은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들로, 모두가 크게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분들이었다. 다만 옥계 노진은 경상도 함양 출신이었지만, 그곳은 전라도와 경계 지역이었다. 또 처가가 남원이었고, 하서·미암·고봉·일제 등과 막역하게 지낸 학우들이었으며, 남원부사·담양부사·전주부윤 등 전라도에서 벼슬을 살았다. 실제로 남원에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남원에 서원이 세워지고, 후손들도 남원에 거주하여 전라도 학자로 부르게 되었다.

유희춘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했으나, 오래지 않아 1549년 명종 2년 양제역 벼서사건으로 무려 19년이 넘는 오랜 귀양살이를 겪어야 했다.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士禍)의 피해자로 권력에 아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긴 귀양살이를 당했던 의인의 한 사

람이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은 미암을 대학자로 키워 주었으며, 많은 저술을 남겨 유학에 큰 공을 세운 학자가 되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유배에서 풀려 벼슬살이에 다시 오르는데, 대사성·부제학·전라도관찰사 등 고관의 지위에 오르고, 말년에는 예조·공조·이조의 참판에 임명되는 등 재신(幸臣)의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인 유희춘보다는 학자 유희춘에 더 적합했으며 외조부 금남의 학문을 이었다. 젊어서는 하서 김인후(金麟厚)와 함께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뒷날에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 들어가 학자로서의 넉넉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미암선생집(眉巖先生集)'이라는 문집을 읽어 보면, 그런 대학자의 학문적 업적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가 학자로서의 넉넉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미암선생집(眉巖先生集)'이라는 문집을 읽어 보면, 그런 대학자의 학문적 업적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가 학자로서의 넉넉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유희춘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했으나, 오래지 않아 1549년 명종 2년 양제역 벼서사건으로 무려 19년이 넘는 오랜 귀양살이를 겪어야 했다.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士禍)의 피해자로 권력에 아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긴 귀양살이를 당했던 의인의 한 사

가하면서 귀중한 학문적 문자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한탄을 말하기도 하였다.

학자로 대접받는 가장 명예로운 일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주는 시호(諡號)에 '문'(文)이라는 글자를 받는 일이고, 최후의 명에는 선비들의 추대와 나라의 허가로 문묘에 배향되는 일이다. 우리 호남에서 문묘에 배향된 분은 유일하게 하서 김인후 뿐이다. 하서의 시호는 문정(文正)이었으며, 이항은 문경(文敬), 박순은 문충(文忠), 기대승은 문헌(文憲), 노진은 문효(文孝), 미암은 문정(文節)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참으로 나라 전체에서도 학자로서 높이 숭앙을 받아야 할 학자에 올랐음을 여기에서 알게 된다.

비록 문묘에 배향되지는 못했으나 미암은 높은 학문에 대하여 당대의 학자들은 모두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율곡(栗谷)·하서(河西) 등 미암의 학문을 칭찬하지 않는 학자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미암의 제자 하곡(荷谷) 허봉(許筇)은 판서에 오른 분으로 허균(許筠)의 형이었는데, 미암의 행장과 시강(諡狀)을 저술해 미암의 일생과 학문적 업적을 소상하게 말해 주고 있다. 미암의 부인 덕봉(德峯) 송씨(宋氏) 또한 여류 문인으로 유명했다. 그런 대학자 미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척되어 호남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꿈꾸는 2040

시도 통합 서둘러야 지역이 산다



김민표
위민연구원 운영위원장·변호사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중전에 203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고 예상하였지만 이런 추세라면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게 된다.

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지역의 인구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8364명으로 광주의 인구는 2015년 150만 6000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지난해 출생자는 1832명으로 광주보다 많지만 전체 인구는 1970년 345만에서 올해 176만 4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속마저 위협할 정도다.

줄어드는 인구는 당장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 수도

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5000명이라고 한다. 지역 경제를 견인해야 할 일꾼들이 해마다 급속도로 이탈하면서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서로 출혈 경쟁을 한다. 적은 예산을 두고 중복 투자, 행정력 낭비는 결국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전략보다는 제 살 깎기식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물꼬는 대구·경북이 났다. 대구와 경북은 512만 인구를 통합하여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역 내 총생산과 지방세 수입이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에 이르게 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뒤질세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도 각각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도시의 발전으로 창원·마산·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고 여수·여천·사·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었던 것과 그 규모가 하천은 국토부, 지방 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홍수 피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사후약방문적인

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한정된 자원을 놓고 광주와 전남이 계속 경쟁하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서울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을 접수받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상당수 중복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경쟁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고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작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행정 통합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첫째, 예산 통합으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다. 정부의 지원 없이 광주의 힘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위한 투자나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통합을 하면 종전에는 광주나 전남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예산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에 각각 1000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다고 가정해보자. 지자체마다 각자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이지만 예산을 합쳐 묶어서 2000억 원을 배정받고 서로 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합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기관 통합을 통

한 예산 절감과 가능 강하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당연히 중복되는 조직이나 기관이 발생한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된 것처럼 규모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복된 기관이 통합되어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점도 예상된다. 시와 도가 통합 되면 광역 단위 사업이 우선시 되고 기초단체 단위의 사업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집중화가 가속될수록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감소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 단위 통합으로 인한 생활의 기준 변경이 늘어지게 된다. 광주 관내에만 머물던 공무원들의 인사가 이동이 광주·전남 전체로 확장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광역 행정 통합 이후 기초단체의 통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통합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에 행정 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현재의 행정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행정, 앞서가는 행정만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홍수 대비도 '뉴 노멀'에 걸맞은 방안을

기고



백기영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지원단 교수

'뉴 노멀'(New Normal)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후 요즘처럼 어울리는 때가 없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이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는 '뉴 노멀' 시대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일까?

54일 동안 이어진 올해 장마는 역대 2위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686.9mm, 수해 피해가 유독 심했던 섬진강 유역은 최대 400mm가 넘는 강우를 기록했고, 하루에는 200년 빈도인 350mm의 비가 왔다. 이는 하천의 설계 홍수량인 100년 빈도를 초과한 수치이다. 강수량은 비단 올해에만 극단적인 수치를 보

이는 것은 아니다. 20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왔고, 작년 일부 지역에는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강수량이 적었다.

강수량의 극단적인 변화는 기후 변화에서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갈 경우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난 10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은 1.8도 증가하고, 강수량은 19% 가량 많아졌다. 이렇게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기후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번 장마나 작년의 가뭄처럼 극단적 변화가 일상화되는 기후 변화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런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천 정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 지방 하천들은 매우 낮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댐은 환경부, 국가 하천은 국토부, 지방 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홍수 피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사후약방문적인

피해 복구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희생양 찾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극단적인 강수량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뉴 노멀' 시대에 맞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하천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홍수 피해 대부분이 지방 및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지원과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물 관리 주체를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중심이 아닌, 관리 대상이 중심이 된 댐과 하천 등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 관리 네트워크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제적 방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유역의 수량·재해·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기상청의 한국 독자 기후 모델인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또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수해, 대풍 피해 등 여러모로 힘든 해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누구도 국가나 제약회사에게 왜 전염병을 예측하여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전염병이 발생할 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해와 관련해서는 200~300년 빈도의 비가 와서 홍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음에도 누구 책임인가로만 시그립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일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같은 확산 방지책과 질병관리본부처럼 명확한 관리 체계, 그리고 백신이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는 코로나19 대응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강수량 변화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해줄 수 있는 하천 정비와 질병관리본부 같은 명확한 관리시스템 및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백신이라 할 수 있는 선제적 방재 시스템의 구축일 것이다. 기후 변화가 일상인 '뉴 노멀' 시대에 맞춘 새로운 물 관리의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社說

50일 만에 되찾은 일상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거리 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늘부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시도는 그러나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 등 일부 지역과 위험도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 두기 완화 조치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11일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2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 지역 감염이 확산한 이후 광주에서는 어제까지 50일 동안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50일 만에 예전의 일상을 거의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1단계 하향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찾게 된 일상생활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 탐방을 지양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5·18 암매장 좌표 새긴 지도 반드시 찾아내야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지나도 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암매장 의혹을 풀어 줄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 당시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이 매장 위치를 좌표로 자세히 표시한 군사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옛교도 "지난 4개월여 동안 236명의 군인을 조사했는데 이들 가운데 26명이 이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이 시체를 묻은 뒤 정확한 위치 식별이 가능한 '8계단 좌표'를 기록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도와 경도를 각각 단 단계로 구분하는 '8계단 좌표'는 5만분의 1 축척 지도에서 10m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진술을 한 군인들 중에는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과 사병들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상

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암매장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다만 암매장 위치를 표시한 8계단 좌표가 어디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옛 광주교도소는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곳이다. 군 당국 자료에는 이곳에서 27명 안팎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금까지 11명의 시신만 수습됐다. 5·18기념재단 등이 그동안 수차례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원 미상의 유골 261구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5·18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위치가 담긴 지도를 찾아낸다면 암매장 의혹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국방부 협력해 매장 좌표가 기록된 군 문서를 하루빨리 찾아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5·18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뒤늦게나마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는 길이다.

無等鼓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의 '테스'는 한 여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1891년 발표된 작품의 원제는 '더버빌가의 테스'이며 '순결한 여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가난한 농가의 딸인 테스는 비락부자인 더버빌 가문에서 하녀로 일하게 된다. 한 데 바람둥이인 그 집 아들 알렉의 유혹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마저 죽고 만다. 테스는 알렉을 피해 도망을 가고,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하다 앤젤이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결혼 첫 날밤 신랑에게 과거를 고백하면서 테스의 삶은 비극적 방향으로 흘러간다.

테스 형! 테스 누나!

간운명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 인습과 도덕적 편견이었다. '테스'에 앞서 수많은 인물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소설 주인공과 실존 인물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가해자가 당대 사회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지난 추석 연휴에 방영된 '나혼자 콘서트' 자장(磁場)이 만만치 않다. 세상살이 고단함을 담은 신곡 '테스 형'은 화제를 넘어 신드롬이 되었다. 특히 '형'이라는 호칭과 현실을 직면한 고백하면서 테스의 삶은 비극적 방향으로 흘러간다.

테도가 돌변한 앤젤은 무심하게 테스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 버린다. 설상가상으로 부모형제가 고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테스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알렉과 원치 않는 동거에 들어간다. 그 즈음 운명의 장난처럼 앤젤이 나타나고, 격정에 사무친 테스는 알렉을 살해한다. 결국 테스는 살인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소설 '테스'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